

해외 인턴십 경험 보고서

이름	한글	김나의	영문	Naeui Kim
학과(전공)	커뮤니케이션학부 신문방송학과		학번	20091131
인턴십 기간	2012년 8월 20일 ~ 2013년 1월 22일			
근무 회사명	Link TV	근무 부서	LinkAsia	

●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한미대학생 연수취업(WEST)’ 프로그램입니다. WEST는 Work, English Study, Travel의 약자로,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경력 및 진로 설계를 돕고 글로벌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프로그램은 최장 18개월의 J-1 비자를 발급해주고, 4개월의 영어 어학 연수 후에 인턴십 구직을 시작합니다. 어학 연수를 제외한 기간 동안 인턴십을 할 수 있고, 구직은 스폰서의 도움과 개인의 노력에 따라 성사됩니다. 인턴십 종료 후 1개월의 자유 여행 시간이 주어집니다.

● 회사에 대한 소개 (회사의 사업영역 및 근무경험을 통해 알게 된 사항 등)



- Link TV는 비영리 방송국으로 광고 수입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LA에 위치한 KCET라는 방송국과 합병하여 지금은 KCETLink가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Link Asia를 비롯해 중동의 이야기를 다루는 Mosaic 등이 있고, 뉴스뿐 만 아니라 월드 뮤직과 드라마도 방영하고 있으며 새로운 뉴스 플랫폼 개발과 온라인 플랫폼의 발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Connecting You to the World’를 모토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시청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것이 회사의 목표입니다.

● 근무 부서에 대한 소개 (회사 내에서 해당 부서가 수행하는 영역 등)

- 제가 5개월 간 일했던 LinkAsia팀은 주로 한, 중, 일과 관련된 뉴스를 중심으로 위클리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뉴스를 다루는 부서이기에 중국의 CCTV, 일본의 NHK, 한국의 MBC, 베트남의 VTV4 등을 모니터하고, 미국을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될만한 아이템을 찾습니다. 미국 언론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 나라의 언론이 전하는 목소리를 그대로 전하자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며, 그래서 저희 부서는 다양한 국적과 언어를 쓰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요일에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전 주 토요일부터 일어난 주요 뉴스를 항상 모니터하고 회의를 통해 아이템을 정하고, 필요하면 세계 각지에 있는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아 지역의 리포터들이 현지에서 직접 촬영한 보도도 방영됩니다. 소셜 미디어 상의 반응 등 날 것 그대로 미국 시청자들에게 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은 주로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하고, 한국계 미국인인 Yul Kwon (권율)씨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스 실시간 모니터

● 교육 내용에 대한 소개 (OJT 외의 별도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 작성)

- OJT 외에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 수행 업무에 대한 소개



크로마키 촬영 중

자동으로 시간에 맞춰 녹화되는 아랍, 일본, 한국, 베트남, 중국의 뉴스를 모니터 합니다. 뉴스들을 기록하여 PD들에게 보고합니다. 그 후, 회의를 거쳐 한 주의 뉴스로 다룰만한 아이템을 고릅니다. 아이템이 정해지면 다른 인턴들과 PD들에게 아이템의 내용을 이메일로 전달합니다. 아이템이 정해진 후에도 끊임없이 매일매일 뉴스 내용을 모니터 하면서 업데이트 된 소식은 없

는지, 더 중요한 뉴스는 없는지 살핍니다. 앵커의 뉴스 리드를 포함한 뉴스 패키지의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트위터 등 관련된 SNS도 찾습니다. 한국 MBC뉴스가 아이템으로 채택되면 뉴스 내용을 영문으로 정확하게 번역합니다. Final Cut Pro를 이용하여 영상 편집도 많이 하면서 포스트 프로덕션 과정에도 참여했습니다.

● 근무 소감 및 향후 계획

RT	RI #	Segment	TRT	END	CAM
00:00	1	Link TV Production Slate	00:08	00:08	
00:08	2	Cold Open (preshow): 1. 2. 3.	00:22	00:30	off cam
00:30	3	Open Animation	00:15	00:45	
00:45	4	Welcome	00:00	00:45	
00:45	5	MBC China-Intro	00:10	00:45	
		MBC Open			

프로그램 런다운

작은 회사이지만 그만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뉴스 인턴으로 들어가서 뉴스 모니터링을 주로 했었는데, 나중에는 영상 편집도 많이 할 수 있어서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프리 프로덕션 과정은 물론 촬영, 편집 등 프로덕션 과정에도 참여하면서 방송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뉴스를 지속적으로 보면서 관련 지식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시사, 정치, 국제 관계

등과 관련된 기사를 주의 깊게 보는 편은 아니었는데, 관심이 없으면 매주 열리는 회의를 따라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을 시작한 후부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 향후 취업 지원 분야 및 준비 계획

미국의 비영리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나서 진로에 대한 생각의 폭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아직 한 학기가 남아서 일단 마지막 학기를 열심히 다니면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